

2016년도 무용 창작산실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심사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무용 창작산실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6. 4. 19(화) 10:00,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 2차 심의 : 2016. 5. 4(수) 9:00, 이음센터 3층 커뮤니티룸

공연예술 창작산실 무용분야 우수작품 재공연 공모에 심사대상은 총 29개 작품으로, 이중 역대 창작산실 우수제작공연에 선정된 재공연 지원작 14개 작품과 금회에 새롭게 신청된 15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1차로 8~9개 작품을 서면심사로 선정한 후 2차 PT를 통한 대면 심층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서면심의 기준에 대하여 전체 접수된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 ① 창작산실 재공연 지원 취지에 맞도록 과거 선정된 작품 중 4~5작품을 PT작으로 선정하고
- ② 지방작품이 소외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 ③ 가급적 선정 작품수가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별로 균형이 필요한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평가하였다.

2차 PT심사 대상은 총 9개 작품이 선정되어 최종 선정심사를 진행했다. 각 작품별로 10분간의 PT발표와 5~10분간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어 기존에 서류심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제시된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나 재공연에 따른 지원요청 예산이 타당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다양한 질의를 통해 작품 구성에 따른 제작비 등의 타당성 있는 실행 가능성이나 구체성에 대한 평가를 크게 반영하였다.

아울러 본 기준 이외에도 작품의 실험성과 창작성, 예술성을 우선하는 한편 무용 저변확대를 위한 대중적 선호도나 매력도, 흥행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 평가하였고, 과거 선정작과 기존작과의 안배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 장르별 균형감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전체적인 작품의 수준이 과거보다 높은 완성도와 예술성을 보이고 있어 창작산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창작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개별작품의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충실성이나 신빙성이 낮고, 작품 규모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지원가능한 최고금액을 신청한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해서는 향후 예술위원회의 사전설명 강화와 신청단체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며, 내년도 2차 최종 심사에서는 실제 예산집행의 타당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선정 시 작품규모를 감안하여 소극장용의 작품이 중형공연 규모로 신청된 사례에 대한 지적도 함께 반영하여 이 경우 지원예산 조정을 통해 차등을 두어 선정하였다. 또한 장르별 안배, 지역별 안배, 신진 예술인이나 원로 예술인의 안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에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독립안무가 우선, 작품의 규모나 대외적 이슈화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건에 맞지 않는 작품은 불가피하게 제외되어 총 9개 작품 중 5개 작품을 최종 선정하였고 지원금도 차등 지원토록 결정하였다.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무용분야 심의위원 일동